FX Market Daily

2026-03-26

전일동향

전일대비 4.50원 상승한 1,499.70원에 마감

2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4.50원 상승한 1,499.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20원 하락한 1,493.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이란의 물밑 협상 정황에도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불확실성에 유가 및 달러화가 반등한 데에 상승 압력 받으며 1,499.7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0.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0.22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93.00	1500.50	1490.20	1499.70	1495.60
엔화	941.94	946.23	939.30	940.22	-
유로화	1735.27	1745.13	1727.85	1733.05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	-3.48	-9.14	-17.7
결제환율(수입)	0	-2.25	-7.07	-14.0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휴전 협상 난항에...1,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99.70) 대비 6.35원 상승한 1,504.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이란 휴전 협상 난항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상승 전망한다. 간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한 적도, 협상할 의사도 없다고 발언하면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통제 체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의 이란 섬 점령 작전에 대해 경고하며, 점령을 돕는 국가들의 모든 핵심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강력한 협상 제안 거부에 국제유가는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간밤 증시가 반등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외환시장에서는 유독 불안감을 반영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지정학적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달러화가 국제유가와 연동돼 움직이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원화의 경우 유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분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고환율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가 금일 환율 상승 압력 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고 있어 긴장 완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과 분기 말 수출업체 및 중공업체 네고물량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97.00 ~ 1509.2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2894.8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35원↑
	■ 美 다우지수 : 46429.49, +305.43p(+0.6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3.1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04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